

# 한국어판 수정된 스트레스 평가 도구(Revised Stress Appraisal Measure)의 타당도와 신뢰도

##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tress Appraisal Measure (RSAM)

김정선\*, 김계하\*\*, 강현철\*\*\*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호서대학교 정보통계학과\*\*\*

Jeong Sun Kim(suji414@hanmail.net)\*, Kye-Ha Kim(kyehakim@hanmail.net)\*\*,  
Hyuncheol Kang(hychkang@hoseo.edu)\*\*\*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정된 스트레스 평가 도구(Revised Stress Appraisal Measure, RSAM)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IBM SPSS Statistics 21과 AMOS 21 program을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검사를 하였다. 자료 수집은 G시와 C 지역 소재의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96명의 대학교 4학년 학생을 임의로 표출하였다. 한국어판 RSAM은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변량은 68.4%를 설명하였다. 5개의 하위요인은 확증적 요인분석에 의해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p < .001$ , Goodness of Fit Index,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ormed Fit Index, Comparative Fit Index  $> .08$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56). 준거타당도에서, 척도의 점수는 한국어판 Perceived Stress Scale (PSS)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신뢰도 계수는 .73에서 .89까지였다. 한국어판 RSAM은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서 만족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도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평가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신뢰도와 타당도 | 스트레스 | 수정된 스트레스 평가도구 |

### Abstract

The study purpose was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tress Appraisal Measure (RSAM) to assess stress appraisal in undergraduate student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onstruct and criterion validity were calculat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1 and AMOS 21 program.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a convenience sample of 296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five universities in G city and C area, South Korea. The Korean version of RSAM categorized into 5 factors explaining 68.4% of the total variance. The model of five subscales was validat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p < .001$ , Goodness of Fit Index,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ormed Fit Index, Comparative Fit Index  $> .08$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56). In criterion validity, the scores for the scal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erceived Stress Scale-Korean. Cronbach's alpha coefficient for the 19 items was .73~.89. The Korean RSAM showed satisfactory construct and criterion validity and reliability. Thus it may be an appropriate instrument for measuring stress appraisal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 keyword : | Reliability and Validity | Stress | Students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심리적 문제이다. 스트레스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결국 이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므로[3]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학업문제, 전공에 대한 갈등, 진로 및 취업에 관한 고민,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그들의 삶에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유발하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5]에서는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68.4%,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22.7%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다른 선행연구[2]에서는 대학생이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중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여 스트레스 정도의 높고 낮음을 파악한 연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스트레스 평가란 개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을 개념화하거나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6]으로 특별한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님을 보여주는 설명이 바로 인지 평가이다[7].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에 따르면[8] 대상자들이 10일 동안 매일 본인이 경험한 불안, 정서적 소모, 스트레스를 자가평가한 결과, 불안을 위협이나 정서적 소모로 생각하기보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촉진제로 해석할 경우, 스트레스원을 위협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에서 미국, 호주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9]에서는 스트레스를 도전으로 평가할 경우, 과업수행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은 일본이나 중국 대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 지각이 삶의 만족과 주관적 행복을 의미하는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10]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평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검토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학교 4학년의 경우 타 학년 학생들에 비해 취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11][12]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또는 안녕감 저하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한다[2][12][13]. 따라서 이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교 4학년생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보면, Cohen, Kamarck과 Mermelstein[14]이 개발한 PSS (Perceived Stress Scale), Frank와 Zyzanski[15]가 개발한 BEPSI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Chang 등[16]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PWI-SF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등이 있는데 이 도구들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 입증된 도구이면서 한국어판으로 개정되어져 있고,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PSS (Perceived Stress Scale)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로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스트레스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으로 정의되어져 있다는 면에서[14] 스트레스 평가 도구라고 보여진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회상 능력에 따른 왜곡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도구에서 제시된 문항들은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SAM (Stress Appraisal Measure)과 다소 차이가 있다. BEPSI는 바쁜 외래에서 의사들이 스트레스 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Frank와 Zyzanski[15]에 의해 개발된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 도구로 각 문항에 대해 자기 기입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량을 측정하여 총합을 구한 후 각 평균 값에 따라 낮은 스트레스군, 중간 스트레스군, 높은 스

트레스군으로 분류되어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17][18]. 그러나 이 도구 역시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양을 측정할 뿐 대상자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PWI-SF는 외국에서 다양한 연구대상 집단을 통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결과 측정도구로서 높이 평가받아 왔던 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를 기초로 Chang 등[16]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한 설문도구이다. 수정된 도구는 정상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정신과적 증상이나 행동양식들을 정상인들과 구별하거나 진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 도구에는 최근 몇 주 간의 육체적, 심리적 상태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 증상 뿐만 아니라 일상적 생활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수행능력이나 자기신뢰, 그리고 일반건강의 측면이 도구에 포함되어 있다[18]. 따라서 비록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할 지라도 이 도구 역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평가 도구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 평가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환자나 학생 등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도되고 있다[7][19-21].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 평가는 삶의 만족과 같은 긍정적 감정, 그리고 건강과 같은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되고 있다[20]. 청소년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감정은 그들의 스트레스 평가 결과로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긍정적 감정이 나타났다[22]. 또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검사 전날 오후부터 운동이나, 알코올, 카페인 음료 섭취를 제한한 후 검사실에 가서 타액 코티졸 수치와 혈액샘플 채취를 통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 측정 조사를 시행한 결과, 스트레스로 평가한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 외에도 Searle과 Auton[9]은 연구결과 스트레스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상자 자신이 스트레스성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결과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스트레스 이론이 평가 과정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반해,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보면 신뢰할 만하고 다양한 조사 장소에 적용가능한 스트레스 평가도구들이 많지 않다[5].

외국에서 개발된 스트레스 평가 도구 중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는 스트레스 교류모델에 맞춰 개발된 Peacock과 Wong[24]의 Stress Appraisal Measure (SAM)가 있다. 스트레스 교류모델은 개인이 환경적 요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즉 사람-환경 간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개인의 스트레스 경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이다[6].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교류모델[6]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가 개인의 자원을 과도하게 넘어서고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할 때 발생한다[19].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2가지 주요한 과정에는 인지 평가와 대처이다[25]. 이 두 과정 중 사건에 대한 인지 평가는 사건을 스트레스로 보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즉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다[26]. Naidoo와 Pau[4] 역시 스트레스는 개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도전(긍정적) 또는 위협(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그 상황에 적응하거나 약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스트레스 교류모델에 의하면 개인의 내적 자원과 환경적 변인들이 개인에게 위협이나 손실, 도전과 같은 유의미한 자극물이 되는지를 결정하고, 그로 인한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쳐 발생한 내, 외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적 반응인 대처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6]. 따라서 대상자들이 먼저 스트레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대처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하고, 향후에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도와준다면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대처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스트레스 교류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스트레스 평가 척도를 우리나라 대상자들에게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AM 역시 요인구조의 불안정성과 일부 하위요인의 낮은 신뢰성, 예측되는 스트레스원의 제한된 검증과 같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정하는 연구를 실시한 결과[19], 19문항의 도구를 최종 개발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RSAM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바 있다[27]. 지금까지는 이처럼 스트레스 교류모델에 근거하여 스트레스 평가 척도가 개발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는 RSAM 외에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Lee 등[28]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라 할지라도 문화와 인구학적 특성이 다른 집단에 적용할 경우, 번안 과정에서의 타당성 확보와 표적 집단에서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 및 취업, 결혼 등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Roesch와 Rowley [19]가 개정한 SAM (Revised Stress Appraisal Measure Revision) 도구를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판 스트레스 평가 측정 도구를 작성하고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Peacock과 Wong[24]이 개발하고 Roesch와 Rowley[19]가 개정한 RSAM 도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추후 우리나라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Roesch와 Rowley[19]가 개발한 개정된 스트레스 평가 측정도구(RSAM)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판 RSAM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와 C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취업률이 높은 의학·약학·간호학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진로 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300명을 편의 추출 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대상 4명을 제외한 총 296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선정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상관관계 양측 검정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3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112명이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항수의 4-5배가 적절하고 다변량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약 200-400 정도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다[29]. 이에 근거해 볼 때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적정 표본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 3. 연구도구

#### 3.1 개정된 스트레스 평가 측정도구(RSAM)

본 도구는 스트레스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Peacock과 Wong[24]이 개발한 Stress Appraisal Measure (SAM)를 Roesch와 Rowley[19]가 개정한 스트레스 평가 측정도구 RSAM으로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요인은 Challenge(도전), Threat(위협), Centrality(중심성)와 Resources(자원)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한다. 총점은 0-7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3.2 한국어판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도구(PSS)

본 도구는 Cohen 등[14]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Park과 Seo[30]가 한국어판으로 개정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은 부정적 지각과 긍정적 지각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0점)'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4점)'로 측정하며 총점은 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을 적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 4. 연구절차

##### 4.1 도구 번역

도구번역은 RSAM의 개발자로부터 도구사용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31]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도구의 한국어 번역은 영어권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다문화전공 교수로 국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언어(bilingual) 사용자(Korean Australians)에게 의뢰하여 원래의 영문도구를 한국어로 번역(forward translation)하였다. 연구자들은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적 차이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문항이 있는지 원본과 비교·대조하여 검토한 후 국문학자를 통해 문장의 흐름이나 어휘선택, 언어표현의 적절성 등을 자문 의뢰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를 '나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방법이 있다'로, '나는 스트레스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나는 스트레스가 위협처럼 느껴진다'로, '나에게 도움을 줄 이용가능한 자원이 있다'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용가능한 자원이 있다'로 어휘의 선택이나 문장의 표현이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한글로 번역된 문항의 검증을 위해 미국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간호학 전공자가 다시 영어로 역번역(back translation)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역번역된 도구를 원래의 영문도구와 비교하면서 본래의 의미전달에 왜곡이 없게 역번역이 되었는지에 대해 역번역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 할 문항이 없는 것에 최종 합의한 후 최종 한국어판 스트레스 평가 측정도구 문항을 완성하였다.

##### 4.2 예비조사

번역과정을 통해 완성된 한국어판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하기에 문항의 언어적 표현이 적절한지, 이해하는데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 설문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였다. 대상자는 본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4년제 대학교 인문·사회계열 5명, 자연계열 5명의 4학년 학생으로 총 10명이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도구내용에 수정 및 보완요구가 없어 본 조사를 위해 최종 한국어판 스트레스 측정도구가 완성되었다.

##### 4.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C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1040198-140225-HR-005-01)을 받았다. 자료수집을 위해 G광역시와 C지역 소재 5개의 4년제 대학교를 방문하여 4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하고 설문조사 전 대상자에게 연구 설명문에 제시된 본 연구의 목적 및 조사방법, 이익과 보상, 자료의 익명성 및 비밀유지, 중도철회가능성을 설명한 후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만 서면동의서를 받고나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시 연구원은 대학교 3학년 학생 4명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진행과정을 이해하고 설문조사방법을 교육받은 후 자료수집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은 자가보고식으로 이루어졌고 설문 응답시간은 약 5-10분정도 소요되었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과 AMO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가설 검정 시 유의수준 .05 하에서 양측검정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한국어판 RSAM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통해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한국어판 RSAM 각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문항간 상관계수(corrected item to tot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시 한국어판 RSAM의 하위범주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각회전법(varimax)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과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사용하였고  $\chi^2$ -통계량,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EM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기준으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준거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한국어판 RSAM의 각 범주와 한국판 PSS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54세(SD=1.81)이었고 52.4%가 여성이었다. 대상자의 49.3%가 종교가 없었고 57.8%가 중간정도의 가정 경제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57.4%, 이공계열이 42.6%이었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37.8%)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만족한다(37.2%) 만족하지 않는다(16.2%)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취업과의 연계성은 높다(36.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보통이다(29.1%), 낮다(16.9%)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부담 정도는 보통이다(38.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높다(34.8%), 낮다(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휴학 횟수는 52.3%가 1회 이상이었으며 이중 20.9%는 2회 이상 휴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6)

특성	실수(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여성	155(52.4)	
남성	141(47.6)	
연령(세)		23.54±1.81
종교		
기독교	81(27.4)	
천주교	36(12.2)	
불교	28(9.5)	
기타 종교	5(1.7)	
없음	146(49.3)	
경제상태		
잘 사는 편	57(19.3)	
중간 정도	171(57.8)	
못 사는 편	68(23.0)	
전공 계열		
인문사회계열	84(53.8)	
자연과학계열	72(46.2)	
전공 만족		
전혀 만족하지 않음	8(2.7)	
만족하지 않음	48(16.2)	
보통	112(37.8)	
만족함	110(37.2)	
매우 만족함	18(6.1)	
등록금 부담		
매우 낮음	17(5.7)	
낮음	33(11.1)	
보통	115(38.9)	
높음	103(34.8)	
매우 높음	28(9.5)	
휴학 횟수		
없음	141(47.6)	
1번	93(31.4)	
2번 이상	62(20.9)	

#### 2. 문항 분석

본 연구는 각 문항과 전체문항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항목-전체 상관계수 값을 확인한 결과, 최저 .38에서 최고 .71까지의 분포를 나타내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문항간 상관계수가 .30미만인 문항은 없었으며 기여도가 너무 높은 .80이상인 문항 또한 없었다. 각 19문항의 평균값은 모두 1.95-3.17 사이에 분포하였다[표 2].

표 2. 문항 분석

문항	평균±표준편차	상관분석
1.나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	2.27±1.02	.70
2.나는 스트레스 요인에 긍정적으로 맞설 수 있다	2.28±0.99	.69
3. 나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방법이 있다	2.39±0.98	.64
4.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성적이다	2.29±0.99	.54

5.나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느낀다	2.26±1.07	.53
6.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2.12±0.98	.59
7.나는 앞으로 있을 결과에 대하여 흥분된다	1.95±1.05	.38
8.나는 스트레스가 위협처럼 느껴진다	2.60±1.02	.56
9.나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2.93±0.99	.56
10.나는 불안하게 느껴진다	2.59±0.98	.61
11.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은 나에게 큰 충격을 준다	2.48±1.09	.64
12.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2.70±1.06	.66
13.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의 결과는 부정적이다	2.48±1.00	.61
14.그 사건은 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69±1.01	.66
15.스트레스는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45±1.04	.66
16.스트레스로 인해 오랫동안 힘이 든다	2.60±1.06	.71
17.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2.60±0.97	.42
18.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용가능한 자원이 있다	2.35±0.97	.48
19.스트레스를 극복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3.17±1.05	.51

### 3. 타당도 분석

#### 3.1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 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이 .90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 2796.0(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방법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인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19문항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40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제 1요인은 6문항으로 20.5%, 제 2요인은 4문항으로 16.9%, 제3요인은 4문항으로 11.5%, 제 4요인은 3문항으로 11%, 제 5요인은 2문항으로 8.5%를 설명하였으며 총 5개 요인은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68.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 요인으로 추출된 원도구와 달리 '도전(challenge)' 요인에 포함되었던 7개 문항 중 4문항('나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 '나는 스트레스 요인에 긍정적으로 맞설 수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방법이 있다.', '나는 스

트레스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은 제 2 요인으로, 3문항('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성적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느낀다.', '나는 앞으로 있을 결과에 대하여 흥분된다.')은 제 4요인으로 분산되어 추출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5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위협(threat)' 요인 5 문항 중 1문항('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과 '자원(resources)' 중 1문항('스트레스를 극복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은 제 1요인으로 통합되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 요인 중 제 1요인은 '위기(crisis)', 제 2요인은 '도전(challenge)', 제 3요인은 '위협(threat)', 제 4요인은 '낙관(optimism)', 제 5요인은 '자원(resources)'으로 명명하였다. 이를 RSAM의 이론적 근거인 Lazarus와 Folkman[4]의 스트레스 교류이론에서 제시한 2가지 차원으로 보면, 1차원에는 제 1요인 '위기(crisis)', 제 3요인 '위협(threat)', 제 4요인 '낙관(optimism)'으로 나타났으며, 2차원에는 제 2요인 '도전(challenge)'과 제 5요인 '자원(resources)'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15	.79				
14	.77				
13	.74				
19	.71				
16	.70				
12	.58				
2		.85			
1		.83			
3		.83			
6		.59			
10			.81		
9			.75		
8			.52		
11			.51		
7				.81	
5				.70	
4				.60	
17					.87
18					.80
Explained variance					
Explained proportion(%)	3.895	3.216	2.190	2.082	1.616
Cumulative proportion(%)	20.50	16.92	11.52	10.96	8.50
	20.50	37.42	48.94	59.90	68.40

\*문항내용은 [표 2] 참조

3.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한국어판 RSAM 도구의 5개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적합도를 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 $\chi^2/df$ ) 값은 271.5/142 = 1.91로 나타났다. 적합도 통계량 중 GFI는 .910, AGFI는 .879, NFI는 .905, CFI는 .952, RMSEA는 .056(CI: .046-.066)으로 일반적인 기준 하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요인적재량을 분석한 결과, 19문항 모두 .4이상 (Range=.57-.88)으로 나타났다[표 2].

3.3 준거타당도

한국어판 RSAM 도구의 각 하위요인의 값과 한국판 PSS와의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한국어판 RSAM 도구는 한국판 PSS와 모두 유의수준이  $p < .001$  ( $r = .32 \sim .5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4].

표 4. PSS와 RSAM과의 상관분석

요인	PSS	
	r	p
요인1	-.47	<.001
요인2	-.55	<.001
요인3	-.40	<.001
요인4	-.43	<.001
요인5	-.32	<.001

4. 신뢰도 분석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가 확인된 한국어판 RSAM의 총 19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89이었으며, 한국어판 RSAM의 전체 평균은 2.48 (SD=.59)이었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값은 '위기' .89, '도전' .86, '위협' .89, '낙관' .79, '자원' .73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점수평균은 '위기' 2.68, '도전' 2.26, '위협' 2.65, '낙관' 2.13, '자원' 2.48이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Peacock과 Wong[24]에 의해 개발되고,

Roesch와 Rowley[19]에 의해 수정된 RSAM을 한국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나 신뢰도에는 내적 일관성,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의 분석 방법은 크게 내용타당도, 준거타당도, 구성타당도로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다[32]. 이러한 타당도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며, 타당화하는 방법상의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33] 본 연구에서는 Peacock과 Wong[24]과 Roesch와 Rowley[19]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 국내 간호학 학술지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34][35]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 그리고 준거타당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여 요인추출한 결과, RSAM은 5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 요인별 문항 수는 1요인이 6문항, 2요인이 4문항, 3요인이 4문항, 4요인이 3문항, 5요인이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4요인의 모델(도전, 위협, 중심성, 자원)로 나타난 개정된 SAM[19]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전, 위협, 중심성, 자원의 4요인으로 분류가 되었던 선행연구[5] 요인구조에서 '낙관'이라는 하나의 요인이 더 추가된 요인구조라 할 수 있다. 또한 5가지 요인들의 총 누적변량은 68.4%로 5개 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정된 SAM[19]의 62.3% 변량보다 더 높은 것이다. Roesch와 Rowley[19] 역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발 당시의 중복적 성향이 있는 6요인(도전, 위협, 중심성, 자기통제, 타인에 의한 통제, 타인에 의한 통제 불가)에서 4요인으로 공통요인을 추출함으로써 간결화하여 원 도구와 차이를 보였다. PSS의 경우도 원래 14문항의 척도였으나[14] 개발된 지 5년 뒤에 미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0문항으로 변경되어 원 도구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5개의 하위요인(위기, 도전, 위협, 낙관, 자원) 중 요인 1은 스트레스를 '위기'로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대상자에게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로 인해 힘이 드는 등 스트레스를 위

기로 보는 6문항이 포함된다. 원래 RSAM에서는 이 요인이 '중심성'이라 명명된 요인이었으나 그 의미전달이 어렵고,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사건은 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의 결과는 부정적이다', '스트레스를 극복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트레스로 인해 오랫동안 힘이 든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 도구[24]에서 제시한 '자신의 안녕에 대해 인식하는 사건의 중요성'이라는 뜻을 설명하기에 모호한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의미전달이 좀 더 용이한 '위기'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요인들은 모두 본 도구에서 제시한 요인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본 요인의 문항 중 '스트레스를 극복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원래 RSAM에서 '자원'으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는 '위협'으로 명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이 문항들을 '위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복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본 연구대상자들이 '힘'이라는 '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위협'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36]이라 할 수 있겠다.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자유를 누리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고, 자기 개발을 통해 원하는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욕구가 강한 때이지만[37] 갈수록 심해져가는 취업난과 스펙에 대한 부담감이 이들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는[38] 국내 사회문화적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인 2는 스트레스를 '도전'으로 평가하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자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요인에는 '나는 스트레스 요인에 긍정적으로 맞설 수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이 문항들을 살펴보면 대상자들이 스트레스라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태도가 보인다. 원 도구인 RSAM에서 모두 '도전'으로 명명되었던 문항들이 이 문항에 포함되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인 3 역시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대상자에게 큰 충격을 주며 스트레스가 위협으로 느껴지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나는 불안하게 느껴진다', '나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나는 스트레스가 위협처럼 느껴진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은 나에게 큰 충격을 준다' 등으로 모두 RSAM에서 역시 '위협' 요인에 포함되어져 있던 문항들로 차이가 없다. 즉, 요인 3(도전)과 요인 4(위협)는 선행연구[19] 대상자인 미국 대학생이나 본 연구의 대상자인 한국 대학생 모두 스트레스에 대해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4는 스트레스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더 강해질 수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결과에 흥분하는 문항이 포함되어져 있다. '낙관' 요인에 포함된 이 문항들은 원래 원 도구에서 '도전'으로 명명된 하위요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이 '도전'과는 구분이 되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성적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느낀다', '나는 앞으로 있을 결과에 대하여 흥분된다'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상황이 올 때 오히려 열성적이고, 더 강해질 수 있으며, 앞으로의 결과에 흥분된다는 것이 포함됨으로써 현재 부딪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대상자들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을 어떤 상황을 희망적으로 본다는 의미의 '낙관'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향후 스트레스 대처에 효율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 대상자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실시되면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요인 5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이용가능한 자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용가능한 자원이 있다’의 이 문항들은 원래 RSAM에서 ‘자원’에 포함되어졌던 문항들 그대로이며 인적 자원이나 이용가능한 무형 자원을 모두 ‘자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Roesch와 Rowley [19]의 연구에서 4요인의 모델(도전, 위협, 중심성, 자원)이 나타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Rowley 등[27]의 연구에서는 3요인의 모델(도전, 위협, 자원)이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Rowley 등[27]은 SAM의 안정성이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Rowley 등[27]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대학생이지만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이라는 국적의 차이가 있고, 취업이나 진로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학교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모집단 내에서도 표본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39]와 같이 요인구성에 약간의 변화가 온 것으로 사료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한국어판 RSAM 도구의 5개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적합도를 보기 위해 표준카이제곱(nomred chi-square= $\chi^2/df$ ), GFI, AGFI, NFI, CFI, RMSEA를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카이제곱은 p값이 .05보다 클 경우 원소간 평균 차이가 .05보다 작아야 하고, GFI, AGFI, NFI는 최소 .70이상이어야 하는데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최적임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40]. 본 연구에서는 GFI와 NFI가 .90이상이고, AGFI도 .879로 .90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가 최적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5요인의 RSAM 구성타당도는 타당도가 높으므로 국내에서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 도구의 준거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판으로 개정된 시각된 스트레스 척도 PSS를

사용하여[30] 본 도구인 한국어판 RSAM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타당도는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도구와 그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표준도구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으로[28] 본 연구결과 두 척도 간 상관계수는 .32~.55 정도의 양의 상관이 있었으며, 하위범주 모두  $p$ 값이 .001 이하로 나타나 준거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본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분석해 본 결과, RSAM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73~.89의 범위를 보였다. 내적 일치도는 각각의 척도가 같은 특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결과는 선행연구[19]에서 나타난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값 범위 .59~.86보다 더 높은 결과이다. 기존 자료[41]에 의하면 내적 일치도가 .70이상이면 받아들여기에 적합한 수준이고, .80이상이면 좋은 신뢰도라고 하였으므로 본 도구의 신뢰도는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도구에서는 문항수가 2개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문항수가 적은 제 5요인 자원의 Cronbach's alpha 값도 .73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여줌으로써 본 도구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사용가능한 내적 일관성의 신뢰성을 지닌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한국어판 RSAM은 외국에서 개발된 원 도구를 번역-역번역, 예비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한국어판 스트레스 평가 척도를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일부 지역의 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 대상자를 제한하였으므로 향후에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 도구에 대한 활용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를 위협, 도전, 위기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 대상자들인 대학생들에서는 ‘낙관’이라는 요인으로 명명된 항목이 추가된 부분을 고려하여 향후에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국내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본 도구의 요인 중 제 5요인(자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상관계수가 .40이하로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준거타당도에서 사용된 PSS와 RSAM간에는 다소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에 오차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준거타당도 도구를 2개 이상의 척도를 사용하여 반복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스트레스 평가와 대상자들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어떤 변수들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 측면에서는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평가 정도를 측정 후 부정적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이들에게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된 변수들을 근거로 이를 개선시켜 주는 실질적 노력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트레스 평가 도구인 RSAM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외국에서 개발된 본 도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19개 문항과 5개의 하부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어판 RSAM은 신뢰도가 높고, 구성타당도가 적절하여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평가 정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RSAM을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므로 향후에 본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어판 RSAM을 이용하여 국내외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시행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자와 어떤 신체적, 심리적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참고 문헌

- [1] S. Vasunilashom, S. M. Lynch, D. A. Gleib, M. Weinstein, and N. Goldman, "Exposure to stressors and trajectories of perceived stress among older adults," *J Gerontol B Psychol Sci Soc Sci*, 2014. Forthcoming.
- [2] 고헌정, 이민규, "대학생의 몰입이 스트레스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제21권, 제4호, pp.283-292, 2013.
- [3] 김노은, "대학생의 스트레스, 탄력성, 삶의 질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4호, pp.1-19, 2011.
- [4] S. Naidoo and A. Pau,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ceived stress," *SADJ*, Vol.63, No.3, pp.148-151, 2008.
- [5] 이명준, 조영채, "일부 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수준과 그의 관련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4권, 제6호, pp.2828-2838, 2013.
- [6]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1984.
- [7] M. Hojat, H. S. Gonnella, J. B. Erdmann, and W. H. Vogel, "Medical students' cognitive appraisal of stressful life events as related to personality, physical well-being, and academic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Pers Individ Dif*, Vol.35, pp.219-235, 2003.
- [8] J. Strack and F. Esteves, "Exams? Why worr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ing anxiety as facilitative, stress appraisal, emotional exhaus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nxiety Stress Coping*, Vol8, pp.1-10, 2014.
- [9] B. Searle and J. C. Auton, "The merits of measuring challenge and hindrance appraisal," *Anxiety Stress Coping*, Vol8, pp.1-23, 2014.
- [10] 김의연, 박영신, 김의철, A. Tsuda, T. Matsuda, and K. Deng, "한국, 일본, 중국 대학생의 사회적

-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지각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 *인간발달연구*, 제20권, 제4호, pp.105-127, 2013.
- [11] 최승혜, 이해영,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808-816, 2013.
- [12] 전혜옥,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성인애착, 자기표현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312-323, 2014
- [13] 조성경, 최연실, “남,녀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22권, 제1호, pp.53-74, 2014.
- [14] S. Cohen, T. Kamarck, and R. Mermelstein,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 Health Soc Behav*, Vol.24, pp.385-396, 1983.
- [15] S. H. Frank and S. J. Zyzanski, “Stress in the clinical setting: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J Fam Pract*, Vol.26, pp.533-539, 1988.
- [16] 장세진, 차봉석, 박종구, 이은경, “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표준화 방안”, *원주의대논문집*, 제7권, 제1호, pp.21-38, 1994.
- [17] 유태우, 허봉렬, 배종면, 정은경, 김철환,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도구 개발연구”, *한국가정의학회지*, 제13권, 제10호, pp.809-820, 1992.
- [18] 허봉렬, 임지혁, 배종면, 최순식, 김성원, 황환식, “외래용 스트레스량 측정도구로서 한국어판 BEPSI 설문서(수정판)의 타당성”, *대한가정의학회지*, 제17권, 제1호, pp.42-53, 1996.
- [19] S. C. Roesch and A. A. Rowley, “Evaluating and developing a multidimensional, dispositional measure of appraisal,” *J Pers Assess*, Vol.85, No.2, pp.188-196, 2005.
- [20] A. Fitzell and K. I. Pakenham, “Application of a stress and coping model to positive and negative adjustment outcomes in colorectal cancer caregiving,” *Psychooncology*, Vol.19, No.11, pp.1171-1178, 2010.
- [21] Z. Nowak and K. Laudanski, “The perception of the illness with subsequent outcome measure in more favorable in continuous peritoneal dialysis vs hemodialysis in the framework of appraisal model of stress,” *Int J Med Sci*, Vol.11, No.3, pp.291-297, 2014.
- [22] A. R. Nicholls, B. Hemmings, and P. J. Clough, “Stress appraisals, emotions, and coping among international adolescent golfers,” *Scand J Med Sci Sports*, Vol.20, No.2, pp.346-355, 2010.
- [23] W. Petra, von K. Roland, E. Luljeta, S. Tobias, F. Adriano, and E. Ulrike, “Variations in anticipatory cognitive stress appraisal and differential proinflammatory cytokine expression in response to acute stress,” *Brain Behav Immun*, Vol.21, No.6, pp.851-859, 2007.
- [24] E. J. Peacock and P. P. Wong, “The stress appraisal measure (SAM):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cognitive appraisal,” *Stress Med*, Vol.6, pp.227-236, 1990.
- [25] S. Folkman, R. S. Lazarus, R. J. Gruen, and A. DeLongis,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 Pers Soc Psychol*, Vol.50, pp.571-579, 1986.
- [26] P. P. Heppner, T. E. Witty, and W. A. Dixon, “Problem-solving appraisal and human adjustment: A review of 20 years of research using the Problem Solving Inventory,” *Couns Psychol*, Vol.32, pp.344-428, 2004.
- [27] A. A. Rowley, S. C. Roesch, B. J. Jurica, and A. A. Vaughn, “Developing and validating a stress appraisal measure for minority adolescents,” *J Adolesc*, Vol.28, No.4, pp.547-557, 2005.
- [28]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김종영, 배정어, 이선미, *간호연구와 통계분석(제4판)*, 수문사, 2009.
- [29] 김계수,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출판사, 2008.

[30] 박준호, 서영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제3호, pp.611-629, 2010.

[31] [http://www.who.int/substance\\_abuse/research\\_tools/translation/en/](http://www.who.int/substance_abuse/research_tools/translation/en/)

[32] 강현철, “구성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요인 분석의 활용”,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5호, pp.587-594, 2013.

[33] J. K. Tak, *Psychological testing: An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and evaluation methods(2nd ed.)*, Hakjisa Publisher, 2007.

[34] 이은현, 김춘자, 김은정, 채현주, 조수연, “자가 보고형 질문지 측정 속성에 대한 평가: 국내 간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1호, pp.50-58, 2013.

[35] 이경희, 신수진, “한국의 도구개발 간호연구에서의 타당도에 대한 고찰”,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6호, pp.697-703, 2013.

[36] 신동우, 유계숙,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이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 분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제1호, pp.3-22, 2012.

[37] 박혜숙, “대학생의 행복정도와 양생실천정도와 의 관련성”,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8권, 제1호, pp.31-39, 2012.

[38] 신지연, *대학생의 행복 요인 탐색과 척도 개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9] 김은주, “노인의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 구성타당도 평가”,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4호, pp.568-578, 2013.

[40] 김기영, 강현철, LISREL (SIMPLIS)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 자유아카데미, 2001.

[41] J. C. Nunnally and I. H.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Inc., 1994.

저자 소개

김 정 선(Jeong Sun Kim)

정회원



- 198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이학사)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간호학 석사)
- 200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간호학 박사)
- 2005년 2월 ~ 현재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 노인건강증진, 치매/여성노인, 노인간호 및 생명윤리, 질적연구, 보완대체요법

김 계 하(Kye-Ha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7년 4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강 현 철(Hyuncheol Kang)

정회원



- 1990년 2월 25일 : 고려대학교, 경제학사
- 1993년 2월 25일 : 고려대학교, 이학석사
- 1999년 2월 25일 :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관심분야> : 데이터마이닝, 다변량자료분석